

광주 법정 서는 전두환 역사적 단죄 계기로

5월단체 등 “감정적 대처 자제...차분히 재판과정 지켜보자” 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5·18 진상규명 출발점”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오는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겠다고(광주일보 2018년 8월 21일자 1면)는 의사를 밝힌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차분히 재판과정을 지켜보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상처를 안고 있는 광주시민들이 감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전 전 대통령측이 이를 빌미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 관할권 이전 등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5·18유족회 등 5월 관련 단체는 이번 재판이 잡을 없이 공정하게 진행돼 역사적 단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방지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22일 5·18기법재단과 5·18유족회 등 5월단체 등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오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오후 관련 긴급대책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정적 대처보다는 5·18진상규명이라는 큰 틀에서 차분히 지켜

보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판정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돌발행위 등이 없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진태 상임이사는 “다음달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5월 진상규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5·18 조사위의 조사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온 계엄군들의 양심적 증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광주시민들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감정을 자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출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 법정에서 성숙한 광주의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춘식 5·18유족회장도 “광주에 온 전두환씨를 직접 봤을 때 울분을 참지 못할 것 같은 유족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 법원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면서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전씨측은 이것을 빌미로 서울에서 재판을 하자고 할 가

능성이 높다.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반성·회개를 보일 지, 끝까지 죄가 없다는 핑계를 댈 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 신부는 이어 “광주시민들이 플래카드나 피켓 등을 통한 의견 표출을 넘어서, 과도하게 격앙된 표현이나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전씨에 대한 처벌 수위보다는, 고령의 전씨가 살아있을 때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고 5·18 진상규명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5월단체와 입장을 같이했다.

5월 단체측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피고인 전두환이 법정에서 출석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밝히는 자리”라면서 “전씨가 재판이나 제도적 방법으로 단죄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민사회가 침착하고 유연하게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헬기 총탄 자국 이렇게 선명하데...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 소사에 대해 증언한 고(故) 조비오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들이 동구 전일빌딩에서 헬기 총탄 자국을 조사하는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의뢰인 광주 정서 잘 알아...성실히 재판 받을 것”

전두환 측 변호사 일문일답 광주시민, 재판 그대로 봐주길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5·18 관련 형사 재판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우교 변호사는 지난 21일 광주일보 통화에서 3차례에 걸쳐 “전두환 대통령은 27일 광주 법정에 출석하신다. 법에 따라 성실히 재판받겠다는 입장”이라며 “광주법정” 출석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전두환)께서는 재판의 별도 언급은 없으셨다. (의뢰인도) 광주 정서를 잘 알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광주 시민들께서 재판을 재판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21~22일 이뤄진 정 변호사, 전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의 일문일답.

-전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하냐.

▲그렇다. 출석하실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법에 따라 성실히 조사 받겠다는 입장이다.

-관할권 다툼, 고령 이유로 줄곧 서울서 재판 받겠다는 입장이었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출석 외에는) 방법이 없다.

-측근들도 대동하고 출석하냐.

▲제가 답할 성질이 아니다.

-재판 관련 전 전 대통령과 직접 의견교환하냐.

▲너무 당연하다. 제가 소송대리인이다.

-재판에 나오는 배경은.

▲재판을 받으라고 하니, 받으러 가는 것이다. 이 사건에 너무 감정을 심지 마시고 재판으로 봐달라.

-전 전 대통령이 재판과 별개로 광주시민에 언급한 게 있었나. 후회나 사죄마음 등등.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으면 공식적으로 하겠지. 혹시 있었다 해도 광주정서에 맞지 않으면 여론이 악화할지 걱정이야 코멘트 하지 않겠다.

/김용희 기자 khh@kwangju.co.kr

“87년 6월항쟁 쿠데타 모의” 전두환 내란음모 혐의 고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7년 6월 항쟁 당시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인권센터 등 단체들은 22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민가협 등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작전명령 제87-4호’ 문건이 불법적 계엄

계획이자 군사독재 연장을 위한 쿠데타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작전일기 1987년 6월 19일 도에 있는 5쪽 분량의 이 문건은 ‘소요진압 작전’을 위한 육군 1~3군 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이하 부대의 배치명령·작전지침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폭력 부른 ‘금배춧값’

“김치 5000원어치 못팔아” 판매상-손님 주먹다짐

‘폭염 피해로 배추가격이 전월 대비 90%나 급등하면서 비싼 김치가격을 놓고 판매상과 손님이 주먹을 다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광주북부경찰은 “김치를 사고팔다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손님 A(여·41)씨와 김치판매점 점원 B(여·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 10분께 광주 북구의 한 김치판매점에서 김치를 사고 파는 문제로 다투다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 A씨가 김치를 5000원 어치만 팔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B씨가 거절하면서 다툼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배춧값이 비싸는데, 5000원어치는 못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에 화가난 A씨는 B씨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렸고, B씨도 A씨의 목살을 잡고 밀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나주 문평면 충전소에서 LP가스통 폭발 2명 부상

22일 오전 9시 41분께 나주시 문평면 한 LPG충전소에서 LP가스통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폭발은 한 통에서만 발생했으며 화재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나주=송영철 기자 yjyson@

김부선, 출석 30분만에 귀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인관계임을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배우 김부선(57)씨가 경찰 출석 30분 만에 들른 귀가.

○...2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피고발인 신부으로 출석한 김씨는 경찰서에 들어가 자마자 수사팀에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며 나갔다는 것.

○...김씨는 경찰서 밖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오늘은 이재명씨의 거짓말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왔다”며 “다음달 10일 전에 변호사 입회하여 고소장 만들어서 정식으로 진술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①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8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주)대신경매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문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토지 기타 추천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4천	① 서구 병천동 현대빌라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⑥ 광산구 월천동 (공장) 토1989평 건2,400평 ▶ 감평가 6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8평 건427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7억2천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 (22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4억2천	⑦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6평 건528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8천
③ 서구 차평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빌라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	⑧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중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데 (25평) ▶ 감평가 3억9천 → 최저 3억5천	⑨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⑤ 북구 영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운남동 남영리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2천	⑩ 남구 백운동 (빌라) 토66평 건145평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함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